

사설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57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가 걸어온 역사는 굽곡 많은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광주일보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격동의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무엇보다 광주일보는 지방분권화시대의 기수로 호남지역이 동북아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왔다. 특히 호남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참다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창사 57주년을 맞은 감회가 마냥 즐겁지 않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위기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비상상황이다.

불황의 그늘은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 수일 뿐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생 등까지 합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4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실직과 영세 자영업의 몰락은 신 빙곤층을 양산하는 등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해 있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지역경제 비중이 큰 건설업은 침체 수준을 넘어서 붕괴 직전이다. 이대로 가다간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

신도시 건설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빈 껍데기만 남을 공산이 커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 2012 여수세계박람회,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둘러싼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월단체간의

아대회 광주 유치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상의 과제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이 세계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J프로젝트나 2015 하계대회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광주일보에 부여된 사명이다.

광주·전남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항상 역사의 중심에서 온 호남인들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창출해야 하는 사명을 알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의 책임과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한다.

창사 57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활기찬 호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율리 광주일보는 지역의 세계화, 인재양성, 지역 유망기업 발굴 등 광주·전남이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민 여러분의 배전의 충고와 사랑을 바란다.

지역 역량 모아 '희망 프로젝트' 열매 맺자

창사 제 57주년에 부쳐

대우일렉 30여 협력사 광주로 온다

이번주내로 결정

국내 3대 가전업체 중 하나인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광주공장 중심의 백색가전 전문기업으로 재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광주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우일렉트로닉스 본사 유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의 인천 공장 폐쇄방침

에 따라 인천 지역 30여개 부품 협력업체들이 이르면 이번 주내 광주 평동공단 이전을 결정한다.

구미 등 타 지역 협력업체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광주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관련, 이 성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장은 21일 광주공장과 평동산단에 마련된 협력업체 이전부지를 둘러보고, 광주시를 방문해 이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노무현 데려 보니 보다

"원더풀!" 완도 슬로시티

관광객 7천여명 참여 걷기대회 성료

아시아 최초의 슬로 도시(Slow City)인 완도군 청산도에서 열린 '제1회 슬로걷기축제'가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2천여명이 참석해 청산도의 수려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7.5km 구간을 걸으며 '느림의 미학'에 흥뻑 빠져들었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일흔' 촬영장 소로도 유명한 청산도에서 관광객들은 유채꽃과 돌담길을 배경으로 사진촬영 등을 하며 '슬로 라이프'(Slow Life)를 즐겼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 "원더풀!"을 연발하며 슬로우 시티(Slow city)에서 무르익는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보리피리

불기와 소 달구지 타기 등의 체험 행사와 함께 해녀 물길질, 조개껍데기 공예전시 등 각종 부대행사도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세계걷기 운동본부 박세직 총재, 김종식 완도군수, 한스 울리히 사이트 주한 독일대사 내정자, 피에르 조르조 이탈리아 치타슬로 연맹본부 사무국장, 크루트 구스타프보이 노르웨이 에이드스코 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틀간 열린 제1회 슬로우걷기대회 축제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7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로또복권

(제33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5 14 27 30 39 43	3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550,987,14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263,473	36
3 5개 숫자 일치	1,325,631	1,365
4 4개 숫자 일치	60,326	59,991
5 3개 숫자 일치	5,000	982,937

팝콘복권

(제15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288,109
2	1억	2조 75,763,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4,238
5	50만	각조 2,949
6	2천	각조 57
7	1천	각조 80
		각조 12
		각조 4
		각조 2
		각조 9

'녹색성장' 추진 본격화

대규모 민간기구 발족

신성장 동력인 녹색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 민간기구가 조만간 발족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산업협의체는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을 대표로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대표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금융협의체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대표로 금융회사와 연구·유관 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인사가 망라된 초대형 협의체가 다음 달까지 발족하는 것이라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산업협의체는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을 대표로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대표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금융협의체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대표로 금융회사와 연구·유관 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산강 살리기

경작지 보상금

7월부터 지급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포함된 영산강 하천구역 내 6.25㎢의 경작지에 대한 보상무기 이달부터 시작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영산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해 오는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8.48㎢)의 7.5배인 64.1㎢가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산강의 경우 6.249㎢의 하천구역이 경작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추경 750억 원을 포함해 현재 1천369억 원의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本社辭令

▲朴永珍: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4월20일자)

